

완도 치유 페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지역 업체 사용 금액별 포인트 지원 3월 한 달간 2204명 혜택 적용 받아 주요 소비자 식당48%·숙박22% 등 추가 혜택 제공 사용률 향상 노력

완도군에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도 치유 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치유 페이’는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판매장 등 이

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5만원 등 최대 20만원을 쿠폰 또는 완도정장마켓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이다.

3월1일부터 한 달간 ‘완도 치유 페이’ 사전 여행 계획서를 등록한 인원은 3269명, 페이(쿠폰·포인트)를 받은 인원은 870팀, 총 2204명으로 파악됐다.

‘완도 치유 페이’를 받은 관광객들의 총 소비 금액은 2억6880만원으로 이 중 85% 이상인 2억2965만원이 지역 내

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처로는 식당(48.29%), 숙박(22.53%), 특산물 매장(24.91%), 카페(4.26%) 순이었으며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은 12만1997원이었다.

관광객은 전남(171건), 광주(139건), 경기(134건), 서울(95건)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완도 치유 페이 관련 안내 문자 발송과 카페,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장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완도 치

유 페이 사용률을 높여 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치유 페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http://www.wdfesta.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마늘·양파 관리 철저 당부 적정 토양수분·병해충 방제 실천

해남군이 고품질 마늘, 양파 생산을 위해 생육 최성기인 4월 내 적절한 토양수분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9일 해남군은 올해 월동작물의 생육은 저온으로 인해 평년보다 다소 늦은 편이며 양파 노균병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초부터 적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이후부터는 마늘 2차 생장(벌마늘, 스펀지마늘)으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 웃거름 사용을 중단하고 기상과 재배지 여건을 고려한 적량의 관수와 마늘종의 조기 제거로 마늘알이 정상적으로 여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늘 알이 자라는 시기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량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뭄이 지속될 때는 자연 강우량을 고려해 10일 간격으로 2~3회 주기적인 물주기를 해야 한다.

또 기온이 상승하고 토양에 수분이 많아지면 노균병,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배 농가는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노균병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용 약제의 주기적인 살포를 통해 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마늘·양파 병해충 발생 증가와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4-5월 수분 관리와 병해충 방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2025 해제면 유채꽃 축제’ 개최 무안군, 12~13일 송계마을서

무안군은 오는 12~13일 이틀간 해제면 도리포 인근 송계마을에서 ‘2025 해제면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장에는 10.5ha 규모의 드넓은 유채꽃밭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포토존도 선사한다.

축제는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으로 마련됐으며 개막식 등 의전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 중심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해변 버스킹, 페이스페인팅, 먹거리 장터, 무안 농수특산물판매장, 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장 인근의 송림해변과 솔바람길에서는 해가 저물 무렵 칠산대교의 형형색색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봄 여행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제18회 해제면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유채꽃 축제는 해제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아름다운 꽃과 지역의 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봄의 향연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영암군보건소, 불소도포 등 지원

영암군보건소가 지난 8일부터 관내 신북초·영암초·소림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학교 구강보건교실은 치과 장비가 갖춰진 학교 공간으로 찾아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기 충치와 같은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영암군보건소는 예방 중심의 구강 보건교육과 검진, 불소도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학교 구강보건교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구강보건교실이 없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을 찾아가 구강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영구치가 자라는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청 직원들이 벼 병해충 피해 차단을 위한 방제 활동에 앞서 드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실시

해남군이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해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 1만7500ha 규모에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이 실시된다.

육묘상자 처리제는 이앙 전 육묘 상자에 처리하는 약제로, 1회 사용만으로도 초기 잎도열병, 목도열병, 벼물바구미, 애멸구뿐만 아니라 흰잎마름병 잎집무

늪마름병까지 예방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또 약효가 최대 90일가량 지속돼 모내기 후 병해충 방제 횟수를 1~2회 줄일 수 있어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병해충이 주로 발생하는 7~9월에 면적 1만9200ha를 대상으로 헬기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진행하고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1만

7500ha의 대상 면적을 확정했으며 항공방제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4월 말까지 접수 중이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의 방제 약제 공급 및 현장 지도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식량작물인 벼, 맥류, 고구마 현장기술지원단이 운영되며 시기별 병해충 예방 현장지도 및 농업인 홍보가 이뤄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확산으로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병해충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피아니스트 배성연 독주회 24일, 강진아트홀

강진군은 피아니스트 배성연 독주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는 24일 오후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발달장애 2급 장애를 딛고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배성연은 순수함을 담아내는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2024 함께, 봄’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강진아트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날 주간에 맞춰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ESG 가치경영의 실현 및 다양성, 포용성 증진 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이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과 브람스의 명작을 배성연의 깊은 감성과 탁월한 연주력으로 만나볼 수 있다.

두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위로와 감동, 인간의 강인한 정신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베토벤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는 그가 운명과 맞서 싸우며 탄생시킨 음악적 깊이를 느끼게 하고 브람스의 ‘인터메조 Op.118 1-5번’을 통해 서정적이고도 환상적인 음악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정보는 강진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희귀 난초 세밀화전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봄을 맞아 식물의 아름다움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 전시를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한국섬온실에서 개최한다.

9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희귀 난초 식물 28종의 아름다움을 세밀화로 담았다.

난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높은 종 다양성을 보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일부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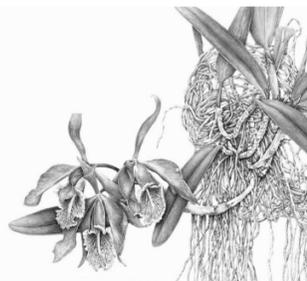
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 한국보태니컬아트 협동조합과 협력해 난초 식물의 보존 필요성을 담아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시에서는 한국섬온실에서 겨울 동안 키운 진달래를 비롯해 섬진달래, 만병초, 월굴 등 다양한 진달래과 식물 200여점을 선보인다.

아울러 진달래, 섬노루귀, 세복수초의 대형 꽃 모형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토존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난초의 숨결, 세밀화에 머물다

2025.4.10. - 6.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섬온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식물과 꽃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라며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한국섬온실은 섬과 연안 지역의 식물들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개관했으며 ‘온실에 찾아온 북극곰’, ‘퇴육도서관’ 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 왔다. **목포=정기찬 기자**